Q&A
레드리본에이즈상담실

Q 하루에 2명 꼴로 감염된다고 하던데?

2006년에 기사를 보니 국내에 하루 평균 2.2명이 감염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에이즈 감염자와 일반인이 성관계시 감염확률은 0.1%~1%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루에 에이즈 감염자중 220명~2200명이 매일 콘돔도 없는 위험한 성관계를 한다는 말인데 이게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감염자수가 40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서 아무리 관리가 안된다고 해도 저렇게 많은 인원이 그런 위험한 성관계를 맺는다는건 말이 안되는거 같아서요. 어떻게 4000명 밖에 안되는 인원이 0.1%~1%의 감염확률 밖에 없는 전염성으로 매일 2.2명씩 감염시킬수가 있나요?

A 확률만으로는 …

2007년 말 통계로 보면 누적감염인 수는 5,323명이고 이 중 980명이 사망하였고 생존해 있는 감염인이 4,343명입니다. 이 통계숫자는 자의든 타의든 간에 에이즈 검사를 받아 양성으로 확진을 받은 분들의 숫자이지요. 하지만 감염 위험행위를 하고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자신의 감염사실을 의심하고 있지만 감염확진 시 받아야 하는 충격으로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 혹은 감염사실도 전혀 모르고 지내는 사람 등 잠복해 있는 감염인들까지 합하면 자금의 숫자에서 3배, 많게는 5배까지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존의 감염인들이 비감염인들과 감염위험 행위를 함으로 감염을 시킨다기 보다는 자신의 감염사실을 모르고 지내시는 훨씬 많은 숫자의 잠복된 감염인이 지속적으로 불특정 다수와 성관계를 하면서 에이즈를 전파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님께서 현재 감염인의 수와 감염확률을 계산하여 신규로 발생하는 감염인 수를 계산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인들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면서 생활하고 있지요. 이번 기회로 에이즈 혹은 에이즈 감염인에 대해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갖고 계셨다면 에이즈에 대해 다시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Q 확진검사결과가 나오는데까지의 기간은?

건강진단서 끊으면서 우연찮게 에이즈 검사도 했어요. 한 달 정도 잊고 지내다 이제 막 생각이 나서요. 만약 1차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2차, 3차 검사한다고 보았는데 1차에서 3차 확진까지 양성이면 확신까지 걸리는 기간(날짜)이 궁금합니다. 쓸데없는 궁금증인지 모르겠지만 궁금하니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무더운 여름 상담하시느라 너무실텐데 시원하게나세요.

A 에이즈 검사절차는 …

에이즈 검사는 먼저 1차 선별검사기관(병·의원, 보건소 등)에서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가 양성반응으로 나오면 혈액을 2차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확진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의뢰받은 혈액을 다시한번 항체검사와 함께 웨스턴블롯(Western blot)이란 확진검사를 실시하시요. 2차 확진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이 되었을 경우 HIV보균자로 확진을 내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1차(병원, 보건소 등), 2차(시·도 보건환경연구원), 3차(질병관리본부) 체계로 되어있어 확진까지 확인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길었으나 이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2006년도부터 확신검사장비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도입이 되면서 검사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진검사를 실시하게 되면서부터 확진검사 결과를 확인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15일 정도로 단축되었습니다.

Q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이?

안녕하세요. 문의 좀 드리기 위해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편견이기도 하고 망상일지도 모르는데요. 김염인의 고의적인 행동으로 인한 감염우려 때문인데요. 요즘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지하철에서도 누군가 바짝 뒤에 서서 살짝 툭 치기라도 한다면 심히 에이즈에 내한 걱정부터 하게 됩니다. 왜 시꾸 이런 생각이 드는지요. 염려 할 부분이 아닌가요? 이런 생각은 저만 하게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편견과 차별이 …

혹시나 일상생활 중 에이즈 감염인이 나에게 감염위험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의 상담이네요. 이것은 님 한분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문제이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에이즈라는 질병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부족한 결과가 아닌가 싶네요. 에이즈 감염은 일상생활에서 절내 감염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바이러스인 HIV(에이즈 원인바이러스)가 공기 중에서는 살아갈 수 없고 상처가 없는 건강한 피부나 딱지가 앉은 아물은 상처를 뚫고 침투할 수 없기도 하는 특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 분류에서도 제 3군으로 지정되어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갖고 있는 에이즈라는 질병에 대한 선입견과 에이즈 감염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매우 심합니다. 더 심하게는 이들과 함께 공존하려고 하지 않을뿐더러 비감염인들에게 고의적으로 해를 입히기 위해 감염위험 행동을 서슴치 않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감염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고의적 위험행동을 하지 않을뿐더러 편견과 차별의 사회에서 살아가기 힘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지요. 그러니 이번 기회에 에이즈라는 질병에 대해 갖고 있는 좋지 않은 선입견과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바꿔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Q 사면발이로도 감염이 한지요?

어찌어찌 하다 결국은 그런 여자들이랑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한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증상 같은 것도 없었고요. 감기나 고피 등의 출혈 등 그런데 몰랐는데 사면바리가 기생을 하는 걸 얼마 전

에 알았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크림으로 사멸시키긴 했는데 이 사면바리가 거기서 옮았는데 내가 몇 달 동안 몰랐던건지 아님 가끔 가던 사우나 탕 안에서 누울 때 올려놨던 타월에서 옮았는지 어떻게 사면바리가 저한데 기생을 하게 됐는지 도 의문이간 한데 그전에 관계할 땐 콘돔은 당연히 사용했었고 여타 출혈이라든가 펠라치오 등도 전혀 없었는데요.

요즘 들어 부쩍 몸이 피곤해서 괜시리 걱정이 돼서요. 목록에서 검색해보니깐 모기나 사면바리로는 옮길 수 없다던데 만약에라도 정말 그럴 일은 없는거겠쇼?

A 에이즈바이러스는 …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바이러스인 HIV(에이즈 원인바이러스)는 사람의 체내에서만 생존·번식이 가능합니다. 사람의 체내가 아닌 동물이나 곤충, 벌레와 같은 생물체의 체내에서는 생존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면발이는 성기주변 음모나 겨드랑이 털에 서식하는 흡혈성 이의 한 종류로 성교를 포함한 보유자와의 가까운 신체 접촉, 의복/이부자리를 통해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이 곤충은 피부를 가렵게 만들고 염증을 일으키며 그것이 습진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면발이가 음모에 전염된 상태에서 에이즈 감염인과 성관계를 할 경우에는 사면발이로 인해 생기는 가려움증과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감염인과 성접촉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될 수 있으면 모르는 상대 혹은 불특정 다수와의 성관계가 있는 상대와의 성접촉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 질외사정일 경우에는?

제가 유학을 가서 외국인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세 번 정도 성관계를 가졌는데 두 번은 콘돔을, 한번은 질외로 허긴 했지만어쨌든 노출은 된거죠? 중요한건 그 사람이 에이즈는 아니지만 자신이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외국엔 본인이 에이즈인 줄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더라구요.

저도 특별히 성관계 후(지금 2개월 정도 지났어요) 감기처럼 아프다거나 오한 발열 구토 등등 이런 것은 아예 없긴 하지만 그런 증상들이 사람마다 나타날 수도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잠시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검사 받고 싶어요.확 률은 있는 거죠? 불안하네요.

A 질외사정이라 하더라도 …

일고 계시는 것처럼 다른 질병처럼 에이즈 감염여부도 증상으로는 판단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의 성관계 중 두 번의 관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콘돔을 올바르게 사용하셨다면 예방이 가능했기에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성관계는 질외사정이라 하더라도 사정 전 분비물(쿠퍼액)에 노출 될 수가 있습니다. 사정 전 분비물(쿠퍼액)과 섞여 나온 정액에 포함된 에이즈바이러스로 인해 감염의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외국인 뿐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에이즈 감염여부는 검사를 받아보지 않는 이상은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에이즈검사는 에이즈바이러스(HIV)에 대한 항체를 찾아내는 검사로 12주 이후 검사에서 정확한 결과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우려되실 만한 성관계가 8주 정도 되셨네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12주 이후 검사를 통해 정확한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이즈 검사는 보건소에서 무료, 익명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협회에서도 서울과 광주, 대구, 창원에서

무료, 익명으로 검사를 해드리고 있으며 결과는 당일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니 사전에 전국대표 상담진화 1588-5448로 예약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감염인상담

Q 치료제 환불?

6월 11일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약을 타왔습니다. 그런데 10일후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보니 두드러기와 온몸에 붉은 반점이 온몸에 팔뚝까지 나아서 전 바로 피부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혹시 약 먹는 것 있냐고 하더군요. 전 머뭇거리다 없다고 하고 감기약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약독 오른 것 아니라 하던데요. 갑자기 잘 듣던 약도 독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약을 처방하고 나서 감기약을 먹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론 지금 복용하는 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큽니다. 우선 8월 8일 날 가야하고요. 그전에 이미 620,000원에 2달치 약을 타서 먹고 있는데 이 약을 못 먹으면 버려야 하는 건지 그렇다고 다시 다른 약을 타서 먹으면 그 돈은 제가 두 번 부담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몸에는 반점이 심할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무섭고 공포감이 듭니다.

솔은 고사하고 지금 기름기 있는 거 먹지도 못하겠습니다. 특별히 가렵지는 않지만 누굴 만나기가 두려워 집니다. 지금 복용하는 약은 3번에 바꿔서 1년 4개월 정도 잘 복용하던 약인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바뀌서 어떻게 해야 할지 혹 이게 몸에 안 받아서 먹으나 마나 일수도 있는 건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병원가면 다시 약을 타야 하는데 그 약값은 제가 2번이나 부담을 해야 하니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요즘 짐도 안 오고 아주 미치겠습니다.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는데 혹 두려워 집니다.

A 에이즈 치료비는 …

치료제부작용으로 극심한 고생을 하고 계시군요. 치료제 복용 중 30~50%의 사람들이 치료제 부작용으로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만 잘 넘기시면 많은 사람들이 적응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의 상황을 잘 모르는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으로부터 피부에 대한 진료만을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의 말씀을 참고하셔서 감염내과 주치의와 의논하여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차이로 인하여 1~2년 치료제를 복용 중에도 이상증세로 치료제를 교체해야 하는 현상이 왕왕 발생합니다. 치료제의 부작용을 잡아낼 수 있으면 잡아내어 다시 적응하도록 할 수도 있지만 지나친 부작용은 치료제를 교체해야만 완화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치료제를 바로 중지하시기 보다는 현재 감염내과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에이즈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는 국가와 시방정부에서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치료를 위해 사용된 모든 비용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의 상담이 정확히 이루어 지지 않은 것 같으니 먼저 해당 보건소에 지료비 환급과정에 대하여 분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구입하여 복용하지 않는 항바이러스제는 진료를 보신 병원을 방문하셔서 무상기증을 하시면 다른 감염인의 치료제로 소중히 쓰여 질 것입니다. 감염내과 주치의 선생님께 현재 정황을 충분히 설명하여 현재의 문제가 회복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